- 제11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목 차

□ 출장 계획

Ⅰ. 출장개요 ····· 1

Ⅱ. 출장목표 및 과제 ····· 2

Ⅲ. 출장 주요일정 ····· 3

Ⅳ. 방문단 현황 ····· 3

Ⅴ. 공식방문 기관별 출장 내용 ····· 4

1. 컨스틀러하우스 예술가협회 간담 ····· 4

2. 오페레타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간담 ····· 9

3.-1 비엔나 더비 경기 시찰 ····· 14

3.-2 레드불FC 간담 ····· 15

4. 프라하1구 구청 사회보건과 간담 ····· 19

5. 체코 관광청 간담 ····· 23

6. 국가별 주요 관광지 점검 및 벤치마킹 ····· 27

① 헝가리 ····· 28

② 오스트리아 ····· 30

③ 체코 ····· 31

④ 기타(관련 명함 및 관광 통계 자료) ····· 32

Ⅵ. 정책반영 토론회 ····· 33

Ⅶ. 총평 ····· 38

Ⅷ. 향후계획 ····· 38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Ⅰ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인 문화·관광·체육 및 보건정책 분야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정 정책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강원도 관광 도약, 문화자치도 실현 등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출장일정** : 2023. 3. 18.(토) ~ 3. 25.(토) / 6박 8일간

○ **출장국가** :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일원

○ **출장인원** : 10명(도의원 8, 의회사무처 2)

- 도의원(8)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 사무처(2) : 사회문화전문위원 외 1명

○ **주요내용**

- 문화 정책 논의 및 도민 문화생활 확대 방안 협의
- 우수 관광지 벤치마킹, 위드코로나 외국 관광 현장 점검
- 주요관광지(플로팅스테이지 등) 점검, 강원관광 활용방안 논의
- 문화유산 건축물·관광지 활용(스토리텔링) 방안 정책 점검
- 강원FC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 구단 정책 분석
- 보건행정 정책 주요사례 연구를 통해 강원도형 시책 논의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홍보

Ⅱ 출장목표 및 과제

1 우수 복지·보건 정책 사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

○ 보건의료분야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 우수 보건 사례 분석을 통해 도내 적용 방안 논의

2 강원FC 운영 활성화 업무협의

○ 레드불FC 구단 운영 현황, 클럽하우스 운영, 입장료 기준, 스폰서 확보 방안, 구단 시설 관리 등 현장 확인 등

○ 강원FC 경쟁력 강화(재정 독립, 우수선수 육성)를 위한 업무협의

3 우수 관광지 벤치마킹 및 관광 정책 논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관광지(플로팅 스테이지 등) 운영상황 점검

○ 구도심 관광 명소 벤치마킹 및 관광활성화 방안 협의

○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모객 확대 방안 업무협의

○ 국내·외 관광 통계 작성 및 활용 방안 벤치마킹

○ 문화유산 건축물·관광지 활용(스토리텔링) 방안 업무협의

4 강원도민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

○ 도민 문화생활 확대 방안, 미술작품 교류 방안 논의

○ 예술인 지원 정책 벤치마킹, 우수 문화정책 업무협의

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도의회 홍보

○ 강원 2024 대회 일정 홍보 및 기념품 전달, 대회 붐업 조성

○ 강원도의회 홍보 및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유 등

Ⅲ 출장 주요일정

일자	도시	시간	세 부 일 정	비고
3. 18.(토)	인천 부다페스트	12:25 -17:15 19:30-20:30	(인천(ICN) 출국) (헝가리 입국) ❍ 야간 관광지 현장 점검	KE961 현장점검
3. 19.(일)	부다페스트 비엔나	10:00-12:00 13:00-16:00 16:00-19:00	❍ 주간 관광지 점검(주·야간 관광지 비교&분석) (이동: 부다페스트→비엔나) ❍ 비엔나FC 경기 운영 현장 점검	현장점검 현장점검
3. 20.(월)	비엔나	10:00-12:00 13:00-15:00 15:00-17:00	❍ **퀸스틀러하우스 미술가협회 관계자 간담** (이동: 비엔나→뫼르비슈) ❍ **오페레타페스티벌 관계자 간담**	**공식방문** **공식방문**
3. 21.(화)	비엔나 짤츠부르크	10:00-12:00 13:00-17:00 17:00-18:00	❍ 주요 관광지 점검(쉐부룬궁전, 음악가의 묘지 등) (이동: 뫼르비슈→짤츠부르크) ❍ 관광지 스토리텔링(게트라이데거리 등) 벤치마킹	현장점검 현장점검
3. 22.(수)	짤츠부르크 프라하	10:00-12:00 14:00-16:00 16:00-19:00	❍ **레드불FC 관계자 간담** ❍ 문화유산 활용 방안 점검(짤츠부르크성, 미라벨정원 등) (이동: 짤츠부르크→프라하)	**공식방문** 현장점검
3. 23.(목)	프라하	10:00-12:00 14:00-16:00	❍ **프라하1구청 사회보건과 관계자 간담** ❍ 프라하성, 카를교 관광지 점검, 드보르작 박물관	**공식방문** 현장점검
3. 24.(금)	프라하 비엔나	10:00-12:00 13:00-15:00 15:00-17:35 19:25-	❍ 바츨라프광장, 하벨시장 탐방 등 ❍ **체코 관광청 관계자 간담** (이동: 프라하→오스트리아 비엔나) (이동: 오스트리아→인천)	현장점검 **공식방문**
3. 25.(토)	인천	14:20	인천(ICN) 입국	

Ⅳ 방문단 현황

연번	소속	직 위	성 명	영문명	비 고
1	사회문화위원회	위 원 장	정재웅	JEONG JAE WOONG	남
2	〃	부위원장	심오섭	SIM O SEOB	남
3	〃	위 원	김시성	KIM SI SUNG	남
4	〃	위 원	김정수	KIM JOUNG SU	남
5	〃	위 원	박관희	PARK GOAN HEE	남
6	〃	위 원	원미희	WON MI HEE	여
7	〃	위 원	원제용	WON JE YONG	남
8	〃	위 원	유순옥	YU SUN OK	여
9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전문위원	김명희	KIM MYUNG HEE	여
10	〃	주 무 관	한종구	HAN JONG GU	남

Ⅴ 공식방문 기관별 출장 내용

1. 퀸스틀러하우스 예술가협회 간담

□ **일 시** : 2023. 3. 20.(월) 10:00~12:00

□ **장 소** : 비엔나 퀸스틀러하우스

□ **면담자** : 타냐 프루셔니크(Tanja Prušnik) 회장, 믈라덴야드리치(Mladen Jadric) 비엔나 공대 교수

□ **간담 주요내용**

○ 예술가협회 운영상황 점검(작품전시, 교육프로그램, 이용현황 등)

○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점검, 미술작품 전시 교류 업무협의

[기관소개] 퀸스틀러하우스 예술가협회

- 퀸스틀러하우스 : 예술가의 집(House of the Artists)
- 비엔나에서 활동하는 화가, 조각가, 건축가, 응용미술가, 영화인들이 본부로 삼고 있는 건물
- 구성 : 전시실, 영화관 등
- 회원수 : 약 500명 ※ 2008년 기준
- 1998년부터 새로운 전시 프로그램 추진(국제 비엔날레 개최)
- 19세 미만 학생에게 무료 개방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 가이드 투어, 워크숍 - 학교, 가족, 성인 문화예술교육 등

주요 질의&답변
Q1. 예술가협회에 있는 전시작품들의 규모는? ⇨ 예술가협회는 1868년부터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전시장과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2016~2020년 봄까지 개축되어 2020년 3월 새롭게 문을 열었음. 1층과 지하에 알베르티나 전시 프로그램 운영중이고, 2개의 독립된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Q2. 강원도 전역을 예술 축제장으로 만들기 위해 트리엔날레를 매년 추진하고 있음. 2024년에 **"국제트리엔날레"**를 개최할 예정으로, 퀸스틀러하우스에 있는 미술작품을 강원트리엔날레에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림. ⇨ 제안에 대해 감사드림. 퀸스틀러에서는 한국의 광주, 대구 비엔날레에 참여하여 전시를 했으며 서울과 계속 교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강원트리엔날레 담당자와 퀸스틀러 측 담당자와 서로 구체적인 일정(디테일한 정보)을 논의하여 가능하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Q3. 문화의도시라 불리는 오스트리아에서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 오스트리아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런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 및 문화 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특히, 전시회에 대해서는 그림, 그래픽, 조각, 건축, 영화, 오디오, 사진 등 다양한 예술의 모든 분야가 어우러져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 Q4. 각종 학교교육을 통해 문화 소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요 교육 노하우는 무엇인가? ⇨ 정부는 초등학교때부터 주 2시간씩 예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고등학교까지 진행됨. 그 밖에도 투어프로젝트*를 유치원부터 진행해 학생과 예술가들이 같이 활동하여 문화예술에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투어프로젝트 : 비엔나에서 학교를 졸업한 미술·공대 전공생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술 투어 Q5. 예술인 창작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가? ⇨ 정부에서 백만유로 정도의 지원이 있음. 1년동안 전시회를 3번정도 큰 규모로 진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위축되었음. 향후 전시회를 재개 예정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더 활발히 진행할 예정임.

주요 질의&답변
Q6. 퀸스틀러하우스에서도 각종 세미나가 개최되는가? 주요 학술연구 내용은 무엇인가? ⇨ 퀸스틀러하우스 협회는 예술적인 이니셔티브와 지역 및 국제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므로 개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식, 다양성의 관점에서 사람, 작품 및 아이디어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은 각자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들의 작품을 사회적으로 예술적으로 의견을 소통하게 하고 있음.

□ 소회 및 시사점

○ 비엔나는 세계 음악의 수도, 문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퀸스틀러하우스는 미술가·조각가·건축가·영화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각각의 예술인들은 네트위크를 통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어릴때부터 체계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학생과 예술가들 간 교류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저명한 예술인이 출현하고, 이는 결국 도시·국가 브랜드 구축 효과로 이어짐.

○ 이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점으로 보이며 오스트리아와 같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도내 주요 작가들과 교류 및 투어 활동을 통해 예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 예술가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도 예술과 복지를 연계한 “치매환자와 그 동반자를 위한 미술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강원도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강원도에서는 2024년에 국제트리엔날레를 개최할 예정으로, 퀸스틀러하우스에 있는 다양한 작품 중 강원 국제트리엔날레와 성격이 맞는 작품들의 전시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 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논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번 간담회 참석한 Mladen Jadric 교수는 '서울국제건축도시비엔날레', '부산건축문화제'에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 강원도와의 이러한 인연을 통해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퀸스틀러하우스 미술작품 이동 동선 및 예술품 활용방안 점검

□ 퀸스틀러하우스 방문사진

[기념촬영(퀸스틀러하우스 건물)**]**

[강원 2024 대회 홍보]

[올림픽 배지 전달]
(비엔나 공대 교수)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협의]
(퀸스틀러하우스 회장, 비엔나 공대 교수)

[기념품 전달(퀸스틀러하우스 회장 등)**]**

[기념촬영(간담회)**]**

2. 오페레타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간담

□ **일　시 :** 2023. 3. 20.(월) 15:00~17:00

□ **장　소 :** 뫼르비슈 오페레타페스티벌 행사장

※ 소재지 : Seefestspiele Mörbisch Festspielgelände 1 A-7072 Mörbisch am See

□ **면담자 :** Thomas Kareba(행사 총감독), Ulla Kruger(행정담당관), Milena Bolanos, Ma(보좌관)

□ **주요내용**

○ 오페라 수상 스테이지 운영 방안 업무협의

○ 오페레타페스티벌 성공개최 노하우 벤치마킹

[행사소개] 뫼르비슈 오페레타 페스티벌

▪ 행사 개요

- 매년 7월 ~ 8월 오스트리아 뫼르비슈에서 개최하는 야외 축제

▪ 오페레타 : 일반 연극처럼 대사가 있고 음악, 노래, 무용이 포함돼 있어 오페라에 비해 대중적임.(후에 뮤지컬로 이행)

▪ 특징

- 호수 위에 무대를 세워 공연을 함
- 첨단 시설의 음향, 화려한 조명 등 뛰어난 무대 디자인으로 유명

▪ 방문객 : 매년 평균 15만 명(출처 : 두산백과)

- 빈에서 휴양을 즐기러 오는 관객 비율이 50%

▪ 무대 : 6,000석 규모

주요 질의&답변
Q1. 뫼르비슈 공연 환경이 강원도와 유사하여 벤치 마킹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음. 현재 뫼르비슈 공연장시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전반적은 운영상황은? ⇨ 1956년에 시작된 행사로 처음에는 나무 의자를 몇 개 놓고 시작했으나 현재는 6,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구성돼 있음. 처음에는 오페레타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뮤지컬도 같이 공연하고 있음. ※ 30년 전엔 무대 3000㎡, 좌석 2500석 처음에는 티켓이 잘 안 팔려서 고전했으나 2~3년 후부터 이름이 잘 알려져서 티켓 판매가 원활하게 되었음. 처음엔 무대가 간단하게 나무판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3년도에 지금의 무대로 튼튼하게 만들어졌음. 2000년도에는 바닥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음.(영상기기, 장치 등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함). 관객은 외지 관광객이 더 많음. Q2. 호수가에 설치할 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시 기계사용을 억제하고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함. 브레겐츠랑 비교해 보면 이곳이 더 무대가 크고 낮은 편임. 그래서 밀어서 움직일수 있는데 브레겐츠는 직접 무대에다 만들어 공연을 하고 있음. 브레겐츠는 2년마다 한번씩 무대를 교체하는데 뫼르비슈는 1년에 한번씩 교체하고 있음. Q3. 무대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가? ⇨ 아래에 아스팔트를 깔고 그 위에 나무를 덧대어 만들어짐. 무대장치들을 위한 기본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음. 조명, 마이크 시스템 등이 공연을 잘 진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음. 데코로 활용하는 것은 철을 이용함. 양쪽 기둥은 조명장치. 야외공연이기 때문에 음향을 신경써서 설치하고 있음. 야외공연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지어졌음. 오스트리아는 음향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임. Q4. 호수의 자산의 소유 기관은 어디인가? 공유수면 관리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가? ⇨ 호수를 사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허용한 곳으로, 정부의 규칙대로 운영함. Q5. 비가 올때는 어떻게 하는가? ⇨ 이 지역은 여름 저녁때 비가 거의 오지 않아(1년에 한 번 비가 옴), 비 때문에 취소되는 일이 없음. 혹시라도 비 소식을 미리 들으면 공연이 취소되지만 공연 중에 비가 오면 그대로 공연을 하게 됨. 오케스트라는 악기들이 비싸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는 무조건 실내에서 공연을 함. 관객은 모니터를 통해서 연주를 보게 되며, 비가와도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그대로 공연을 감상하게 됨. 브레겐츠는 무대에, 오케스트라를 위해 유리로 막아놓은 공간이 있어 공연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있음. 또한 작은 규모의 실내 공연장도 있어 그곳에서 공연을 볼 수도 있음.

주요 질의&답변
Q6.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운영되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 정부에서 지원은 하되 이곳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전부 다시 정부로 환원됨. 그동안 정부지원이나 공연 수익으로 충당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2~3년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Q7. 오페레타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가? ⇨ 오페레타페스티벌은 임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 각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음. 오스트리아는 세금을 예술 분야에 많이 사용하고 있음.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20명 정도인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10년전에는 지원금을 받지않고 운영했는데 현재는 물가가 많이 비싸져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여름시즌에 장소만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인건비는 공연 비용에 따라 그때그때 정산 됨. 어느공연을 하느냐에 따라 인건비는 변동되는 상황임. Q8.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관심으로 가능해진 것이고, 이렇게 조그만 시골 마을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는 것이 놀라움. 호수뿐만이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과 모든 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행사로 발전한 것으로 보임. ⇨ 본 행사는 2차 대전 중 극장들이 파괴되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호수 위에 바지선을 띄워 놓고 공연한 것을 모태로 발전한 것임. 브레겐츠도 마찬 가지이며, 무대에 작품을 올리기 위해 2년동안 준비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소회 및 시사점

○ 오페레타페스티벌(이하, 뫼르비슈 페스티벌) 업무협의는 호수가 있는 춘천·강릉 등에 수상 스테이지 무대를 설치하여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것임.

○ 수상스테이지 페스티벌은 '뫼르비슈'와 '브레겐츠'라는 2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 뫼르비슈 조직위 관계자에게 브레겐츠와의 차별화 전략 및 브레겐츠에 있는 공연에 대해서도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음.

○ 뫼르비슈페스티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됐으며, 전쟁 후 도심 무대공연 시설이 모두 파괴되어 호수에 바지선을 띄워 행사를 진행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함.

○ 처음에는 배 위에서 공연을 했으나 정착되면서 나무로 무대를 제작하여 페스티벌을 진행하였고,

- 규모가 커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 무대를 건설하고, 무대구조는 매년 변경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호수 위에 무대를 만드는 것은 환경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이를 질의하였으며,

- 유럽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각종 작업은 가능한 한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함.

○ 강원도는 우기가 있으므로, 오케스트라 악기의 경우 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행사 추진을 검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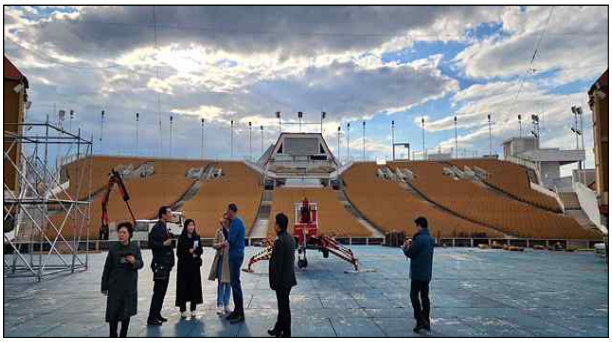
- 오케스트라를 별도의 공간에 위치하거나, 유리로 된 곳에서 비를 피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임.

○ 뫼르비슈페스티벌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대시설로,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6,000석 규모의 야외 행사를 진행하는데도 영상장비, 조명, 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높은 면모를 보였음.

- 이러한 전문성이 있어야 관객을 유치하고 세계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초기에는 실적이 부진했으나 3년정도 지난 후, 인지도가 높아져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강원도에서도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초기 단계에서는 각종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할 것임.

□ 오페레타페스티벌 현장 방문사진



[플로팅 스테이지 시설 소개(행사 총감독)**]**

[오페레타페스티벌 운영 소개(행정담당관)**]**

[오페레타페스티벌 운영 질의&답변]

[오케스트라 공연 시설 소개(행사 총감독)**]**

[기념품 전달(행사 총감독 등)**]**

[기념촬영(좌석 배경)**]**

[기념촬영(수상 스테이지 배경)**]**

[무대 관련 시설 점검(행사 총감독)**]**

3-1. 아우스트리아비엔나 vs 라피드비엔나 더비 경기 시찰

□ **일　시 :** 2023. 3. 19.(일) 17:00~　　※ 사전 행사 : 16:00~

□ **장　소 :** Generali-Arena 경기장　　※ 17,500명 수용 가능

□ **주요내용**

○ 사전 행사 현장 점검(관중문화, 푸드트럭, 사전 이벤트 등)

○ 경기장 운영 전반(관객 이동 동선, 경기장 시설 등) 벤치마킹

□ **관중 이동 동선 확인, 응원문화 점검 등**

3-2. 레드불FC 간담

□ **일 시** : 2023. 3. 22.(수) 10:00~12:00

□ **장 소** : 레드불FC 아카데미

□ **면담자** : Sascha Milicevic(아카데미 코디네이터 스카우팅), Georg Wimmer(마케팅과장), Anton Wiedermann(운영 매니저), Antonia Grech(마케팅매니저)

□ **주요내용**

○ 구단 운영 및 마케팅 관련 내용 업무협의

○ 유소년 선수 육성 방안 벤치마킹

[기관소개] 레드불FC 잘츠부르크

▪ 홈구장 : 레드불 아레나 발스지첸하임

- 2003년 개장, 2006~2007년 좌석 확장(18,200석 → 31,859석)
- 건설 비용 : 약 630억 원(4,500만 유로)

▪ 22/23시즌 오스트리아 리그 1위

- 10시즌 연속 리그 우승 달성(13/14시즌~21/22시즌)

▪ 짤츠부르크 인구 : 157,232명

▪ 역대 한국인 선수

- 서정원(2005)
- 황희찬(2015~2020)
- 김정민(2018~2020)

주요 질의&답변

Q1. 레드불FC 잘츠부르크만의 특별한 마케팅은?

⇨ 레드불FC는 창단 이후 유소년 선수단 육성을 통해 선수층을 두텁게 구성하여 기초를 다졌음.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실력을 가진 팀을 이루어 오스트리아 리그 1위 자리를 10년동안 지키고 있음. 특별한 마케팅이 없이도 우수한 실력을 바탕으로 좋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하여 다양한 굿즈 판매, 유명 선수들 일상을 공유하는 컨텐츠 등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음.

Q2. 정부나 기타 지원이 있는가? 운영자금 마련은 어떻게 하는가?

⇨ 전혀 지원이 필요 없음.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여 구단을 운영중임.

Q3. 주 수입원은 무엇인가?

⇨ 우수 선수를 육성하여 트레이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음. 카림 아데예미, 엘링 홀란, 사디오 마네 등 선수들 이적료가 주요 재원이며 유소년 선수단 육성을 통해 계속해서 주요 선수를 발굴하고 있음.

Q4. 유소년 선수 육성 비결은?

⇨ 아카데미는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6~18세의 어린 축구 선수들을 모집함. 13살 이후 유소년아카데미에서 기숙생활을 하고, 현재 350명 정도의 청소년 선수들이 있음.
어학 기준이 있으며(독일어 필수) 유소년 시절부터 레드불FC의 철학*이 몸에 배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음. 일일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훈련하고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레드불FC는 아카데미에서 다져진 것이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음.

* Talent bringt dich an den start. Einstellung ans ziel : 재능은 선수를 출발선에 서게 해준다. 하지만, 태도는 선수를 결승선에 들어가게 해준다.

Q5. 유소년아카데미의 운영상황은?

⇨ 유소년아카데미는 실내축구장, 실외축구장, 헬스장, 수영장(테라피), 정신 훈련장, 의무실, 구내식당 등이 있으며 특이하게 아이스하키 선수도 같이 육성하고 있어 지하에 아이스하키장도 있음.
헬스장의 경우 운동머신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운동횟수, 자세 등을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식당, 의무실도 선수들의 특성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음.

Q7. 레드불FC 평균 관중 수는? 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 경기마다 다르지만, 평균 관중 수는 15,000명 정도임. 관중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Q8. 레드불FC의 주차장 수는? 관중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가?

⇨ 주차장은 3,000대 정도가 있으며, 경기장 주변에 주차를 할 수도 있음. 관중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로 경기장까지 쉽게 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좌석할인을 진행하기도 함.

□ 소회 및 시사점

○ 레드불FC의 경우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10여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명문 구단임.

○ 레드불FC는 정부나 기타 지원 없이 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고 트레이딩을 통해 주요 재원을 마련하고,
- 그 밖에 유명 선수의 일상을 공유하는 콘텐츠 및 각종 굿즈 판매로 기타 수입을 거두고 있음.

○ 레드불FC는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비결로 '레드불FC 아카데미'를 들었으며, 이에 '레드불FC 아카데미'를 방문하여 유소년 선수 육성 노하우 등을 확인함.

○ '레드불FC 아카데미'에서는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6~18세의 축구 선수를 모집하여 훈련하고 있으며, 야외축구장 및 실내축구장, 헬스장, 수영장, 정신 훈련장, 의무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레드불FC의 우수한 실력과 아카데미의 첨단 시설 덕분에 오스트리아 및 주변국가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레드불FC 아카데미'에 입소하고 싶어하며, 아카데미에서는 선수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해 내면을 강화하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단번에 '레드불FC 아카데미'와 같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유소년 선수단 육성을 통해 구단 경쟁력을 강화하여 재정적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구단의 실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굿즈·티켓 판매가 올라가고, 팬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강원FC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

□ 레드불FC 아카데미 방문사진

[레드불FC 아카데미 주요 업적 안내]
(사샤 밀리세비치 코니네이터)

[구단 활성화 질의&답변(스탠딩 토론)**]**

[시설견학(정신 수련장)**]**

[시설견학(수영 테라피)**]**

[시설견학(신체측정기구, 헬스장 등)**]**

[기념촬영(실내축구장)**]**

[기념품 전달(코디네이터 등)**]**

[기념촬영(레드불FC 아카데미)**]**

4. 프라하 1구 구청 사회보건과 간담

□ **일　시 :** 2023. 3. 23.(목) 10:00~12:00

□ **장　소 :** 프라하 1구 구청 사회보건과

□ **면담자 :** Ivana Antalova(councilor for social and welfare PRAHA 1) , Dorian Gaar(chief manager of the foreign affair department)

□ **주요내용**

○ 체코의 어르신 관련 정책 벤치마킹

○ 정신건강 분야 및 사회복지종사자 소진 문제 업무협의

[기관소개] 프라하 1구 사회보건과

▪ **프라하 1구**

- 1구 인구 : 3만 5천여명　※ 프라하 전체 인구 : 120만명
- 프라하 자치구 : 22개 자치구역으로 나눠져 있음

※ 1~10구역 : 시청(구청) / 나머지 구역 : 자치행정구로 각각 행정업무 수행

▪ **프라하 1구 사회보건과 주요 역할**

- 건강 관련 문제 예방 및 조치
- 감염병 예방 및 대응
- 환경 및 보건 관리
- 보건 행정 및 정책 수립
- 시민 건강 증진

주요 질의&답변

[프라하 1구에 대한 사회보건부서 주요 정책 설명 / 이바나 안탈로바 시의원]

- 프라하1구 인구(35,000명) 중 8,000명 정도가 시니어 인구임. 그래서 많은 사회 정책이 그들(시니어)에게 맞춰져 있음.
- 다양한 시니어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음. 무장애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음. 각종 투어 프로그램 및 컴퓨터·댄스·콘서트 등을 배울 수 있게 지원해줌. 노인클럽 등도 적극 운영 중임.
- 1구에서 자체 운영하는 병원도 있음. ※ (체코) 보통 병원을 국가가 운영함.
- 체코법에 따라, 다음 5가지 분야에 대해 사회보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①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② 사회소외계층 지원(1구가 소유한 집을 지원, 기숙사 체류, 공동욕실·부엌)
  ③ 주거에 대한 지원(파산 등 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
  ④ 시니어, 장애인 담당(장보기, 은행일 등을 사회복지사가 도와줌)
  ⑤ 홈리스 예방, 홈리스(노숙자) 정책 담당(취업, 위생, 사회복귀 등 지원)
  + 휠체어 등을 위한 거리 턱 제거(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1구에만 1,000여명 있음)
- 비영리단체와 협업을 통해 시니어·장애인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함.
-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편안히 생활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Q1. 노인인구가 30%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한 롱텀케어 대책은?

⇨ 요양시설이 1구에는 없음. 이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건설할 계획임.

Q2. 요양시설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역할인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역할인가?

⇨ 프라하1구(지방정부)에서 요양시설을 건축예정임. 국가시설과 민간시설이 모두 존재하며, 민간 요양시설은 높은 가격으로 운영중임.

Q3.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 있는가?

⇨ 관련 대학교를 졸업해야 함. 다만, 처우가 낮아(급여 낮음) 지원자가 적음.

Q4. 그들을 위한 처우개선 계획은?

⇨ 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일하고 고생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중임 (현재 최저임금 수준). 번아웃이 오기 전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음.

Q5.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주체는 민간인가? 공공인가?

⇨ 공공과 민간 모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보조금은 똑같이 받으며, 민간시설은 비싸서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공공시설은 소외계층이 이용하고 있음.

Q6. 외국인(난민)을 위한 의료정책의 방향은?

⇨ 보통 프라하 1구에 있는 장기체류자들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시민과 같은 의료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없어 사회보장이 되지 않고 있음.

주요 질의&답변
Q7. 체코의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제도는? ⇨ 체코는 환자의 개별 정신건강에 대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공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치료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정신건강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소회 및 시사점

○ 체코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다양한 시니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체코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공공 요양시설' 및 '노인 거주시설'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강원도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체코의 노인인구 비율(약 21.5%) / 대한민국 노인 인구 비율(약 17.5%)

- 또한,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투어·예술·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그 밖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 컴퓨터 교육 등을 하여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케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체코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 지원을 하는 별도의 분야를 설정하여 출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접근&치료를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지원을 통해 환자 편의주의적인 방식을 갖고 있음.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우 개선을 위해 체코 내에서도 강원도와 정책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회복지사의 번아웃(소진)이 되기 전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일부 우수한 점이 확인됨.

□ 프라하 1구 사회보건과 방문사진

[사회보건과 방문(시의원, 관련부장 등)**]**

[주요정책 설명(이바나 안탈로바 시의원)**]**

[어르신 우수 정책 벤치마킹]

[주요 보건 정책 질의&답변]

[기념품 전달(시의원, 관련부장)**]**

[기념촬영(간담회장)**]**

[기념촬영(사회보건과 건물)**]**

[프라하1구 사회보건과]

5. 체코 관광청 간담

□ **일　시** : 2023. 3. 24.(금) 13:00~15:00

□ **장　소** : 체코 관광청

□ **면담자** : Lenka Novakova(Chief manager of foreign affairs for Asian market), David Stitek(Manager of statistic deoartment)

□ **주요내용**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관광 정책 연구

○ 문화유적 시설 유지관리 방안, 관광 스토리텔링 전략 협의

[기관소개] 체코 관광청

▪ **주요 역할**

- 체코 관광지 홍보 및 마케팅
- 관광정보 제공
- 관광지 개발 지원
- 관광안전 관리
- 지역 사회 협력

▪ **체코 해외 관광사무소(지사)**

- 21개의 해외 사무소·지사(한국,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를 운영중임. ※ 한국지사는 2010년 설립
- 각 지사는 체코의 관광지 홍보, 문화교류, 정보제공 등 마케팅 추진

▪ **체코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

- 2019년 기준, 외국인 2,200만명이 체코 방문 ※ 체코 관광객의 60% 해당

주요 질의&답변

[프라하 관광청 주요 관광통계 정책 설명 / 데이비드 스티텍] ※2021 관광통계 기준

- 외국에서 체코를 방문한 국가 별 선호관광지, 숨겨진 관광지 발굴 사례 안내
-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분석완료함
-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있음
  ① 미디어 등 광고 효과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3,400만 유로)
  ② 관광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 수 : 2,150만명
  ③ SNS를 통해 관광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 : 144만명
- 아래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냄
  ① 외국에서 체코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 증감률, 체류시간(1년 평균)
  ② 미디어 홍보를 통해 얻은 가치(주요 미디어, viewer 수)
  ③ 해당 국가에서 홍보효과가 높은 사례를 별도 표시(ex, OTS, mucha 퀴즈)
  ④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⑤ SNS 팬 수
- 주요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 모객을 한 방법
- 주요 인플루언서 활동(기자, 팸투어, 인플루언서) 및 이를 통해 얻은 수입액
- 주요 캠페인 활동(관광포럼, 여행업 포럼, 안전여행)
- 체코 내국인 관광 숫자 통계(국내 관광 홍보 수입액, TOP관광테마, 이벤트 등)
- 주요 관광지(관광지, 방문객, 선호도)

Q1. 국내외 관광홍보를 위한 미디어, 인플루언서 활용 방안은?

⇨ 인플루언서와 미디어 모두 타깃이 다름(연령, 성별 등). 모두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음. 마케팅부서에서 매체별 홍보타깃을 나눠서 홍보함.

Q2. 관광정책에 대한 주요 정책은?

⇨ 관광 지사가 주요 각국에 위치해 있음. 직원이 파견나간 곳 별도 표시

⇨ 헤시태그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친숙한 것으로 바꿈
(visit czech republic → visit czechia)

⇨ 봄과 가을에 특별 캠페인을 개최하여 관광객 모객

⇨ 옛날과 현재를 비교하는 사진을 통해 관광 어필(음식, 관광지, 기념품 등)

⇨ 계절별 비교하는 사진을 통해서 관광지 매력 어필(액티비티 활동 등)

⇨ 구글에 팝업 광고를 뜨게 하여 서칭 시 바로 검색되도록 추진

⇨ '체코스페셜 프로그램' 추진(홈페이지에서 음식점, 카페, 숍 선정하여 홍보, 해당 지역 방문시 스템프 찍어서 기념품 지급 등)

⇨ 유럽 전역 2023년 주요 행사장에서도 체코 관광 홍보

⇨ 관광을 4개로 구분<컬쳐 / 액티비티 / 온천(건강) / MICE(회의)>하여 중점 추진

⇨ 와인 투어, 미슐랭 투어, 숨겨진 관광지 투어, 지역 농가와 연계한 관광 추진

⇨ 장애인 관광(Accessible 투어), 환경관광(sustainable 투어)에도 집중

⇨ 숙박지 가격, 체류 기간별 비교 분석하여 관광객 모객을 위해 노력중임.

□ 소회 및 시사점

○ 체코 프라하는 동유럽의 대표 여행지로 손꼽히는 장소임. 중세시대의 건축물과 프라하성의 야경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코로나 이전에는 (2019년 기준)외국인 관광객 2,200만명이 체코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년)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 1,750만명

○ 체코 관광청에서는 국가별로 외국인 관광객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음.

○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전에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효율적인 전략 수립 및 모객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체코 관광청에서는 이를 적절히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강원도의 관광객 통계 수치 산정방식 및 국가별 통계 분석현황을 살펴보고 체코의 관광통계 방식에서 벤치마킹할 점들은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체코 관광청에서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현황 분석을 통해 타깃별(연령, 국가, 성별 등) 관광정책 수립,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관광지를 숨겨진 관광지(hidden place)로 구분하여 신규 관광지 발굴, 홍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그 밖에도 외국인에 맞춰 헤시태그를 전면 개편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친근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방식과,

- "과거와 현재", "계절별" 비교하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점을 강원도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체코 관광청 방문사진

[관광청 방문(아시아권 담당 국장 등) **]**

[글로벌 관광 정책 업무협의]

[통계자료 설명(통계부서 관리자)**]**

[체코 관광 정책 설명(통계부서 관리자)**]**

[기념품 전달(담당 국장 등)**]**

[기념촬영]

6. 국가별 주요 관광지 점검 및 벤치마킹

□ **일 시** : 2023. 3. 18.(토)~3. 23.(목)

□ **장 소** :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일원

□ **주요내용**

① **헝가리**(부다페스트)

○ 야간 투어 코스 점검 및 도내 주요 야간 관광지 비교, 벤치마킹

○ 관광지 이동동선, 야간 관광지 운영실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코스 또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 포토스팟 확인 등

② **오스트리아**(비엔나, 잘츠부르크)

○ 문화유산 건축물·역사적인 인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사례 연구

○ 도나우강·알프스산맥 활용 관광지 및 도심 관광 우수사례 벤치마킹

③ **체코**(프라하)

○ 중세시대 건축양식을 활용한 우수 관광 사례 연구

○ 소규모 박물관 운영 상황 점검

○ 공공시설 관광명소화 사례 벤치마킹

○ 역사적인 사건 활용 관광 스토리텔링 사례 분석

○ 거리예술 및 도심지 관광·쇼핑·음식점 운영 사례 연구

□ 관련 사진

① 헝가리

○ (3. 18.) 부다페스트 야간 관광지 현지시찰

※ 춘천 호수별빛나라축제, 강릉 야관관광 특화도시 적용 검토

춘천 호수별빛나라	강릉 경포대 벚꽃야경

○ (3. 19.) 마차시교회, 부다왕궁, 영웅광장 등 관광지 현지시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

[총리·대통령 공관 활용 비교(관광지 동선)]

[코로나19 시기 노후관광지 보수 현장 점검]

[관광안내지도 점검]

[문화재 건물 활용 방안 사례연구]

[중세유적 건축물 관광 활용방안 기록]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

② 오스트리아

○ (3. 20.) 시민공원, 음악가의묘지 관광지 스토리텔링 점검

[기념촬영(시민공원)**]**

[주요 벤치마킹 사항 기록]

○ (3. 21.) 구시가지, 쉐부른궁전, 미라벨정원 관광지 등 현지시찰

[중세유적 건축물 관광 활용 사례 분석]

[기념촬영(쉐부룬궁전)**]**

[기념촬영(미라벨정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

○ (3. 22.) 호엔잘츠부르크성, 게트라이데거리 현지시찰

[케이블카&자연 관광 활용 점검]

[게트라이데거리 점검]

③ 체코

○ (3. 23.) 바츨라프 광장, 드보르작박물관, 체코 야간 관광 등 현지시찰

[스토리텔링 사례연구(바츨라프광장)]

[스토리텔링 사례연구(천문시계탑)]

[드보르작 박물관 운영상황 점검]

[드보르작 박물관 운영상황 점검]

[프라하시청 앞 기념촬영]

[프라하성 야간관광 현지시찰]

○ (3. 24.) 프라하성 건축물 점검 및 스토리텔링 분석

[프라하성 스토리텔링 사례 분석]

[황금소로 관광지 현지시찰]

④ 기타(관련 명함 및 관광 통계 자료)

간담 관계자 명함(오페레타 페스티벌 / 퀸스틀러하우스 / 레드불FC)

[체코 관광청 통계분석 자료]

Ⅵ 도정 정책 반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 추진개요

○ 일시 : 2023. 5. 17.(수) 16:00

○ 장소 : 도의회 세미나실

○ 참석 : 16명(사회문화위원회 8, 전문위원실 8)

○ 주요내용

- 국외연수 국가(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 주요 벤치마킹 사례 논의

- 우수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도정 정책 반영 논의

□ 추진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5	5′	▪ 인사말씀	위원장 주재
16:05~16:20	15′	▪ 결과보고(부위원장)	
16:20~17:50	90′	▪ 토론	
17:50~18:00	10′	▪ 마무리말씀	

□ 주요내용

○ 강원FC 재정 독립 및 운영 개선을 위해 구단·집행부·의회 공조 필요

○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뫼르비슈 사례 적극 벤치마킹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유적 건축, 활용을 위해 고민이 필요

○ 문화·복지를 연계한 사업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

○ 국민소득 증가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음.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토론회 회의록

□ **인사말씀(정재웅 위원장)**

❍ 지난 3월 있었던 공무국외출장 주요 내용을 강원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우수 사례를 찾아내고자 많이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강원도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말씀 바람.

□ **결과보고(심오섭 부위원장)** ※ 주요내용 위주로 요약

❍ 2023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를 방문한 공무국외출장은, 6박 8일 중 주말과 비행시간을 제외하면, 5일이 채 안되는 기간 중 5개 기관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문화·체육·보건·지역 관광축제 위주로 계획하여 진행하였음.

❍ 오스트리아에서는 문화예술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도민의 문화생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뫼르비슈 오페레타페스티벌 축제 성공 운영 방안을 알아보았음.

❍ 강원FC 활성화를 위해 레드불FC를 방문하여 구단 운영 노하우를 들었으며,

❍ 체코에서는 사회보건과를 방문하여 어르신정책과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토론하고, 관광청에서는 관광객 통계자료 분석·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엔데믹 시대 관광 동향과 주요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각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여 스토리텔링 사례 등을 분석하는 시간도 가졌음.

□ **주요 말씀사항**

❍ **(김정수 위원)** 강원FC도 잘츠부르크처럼 수익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필요. 잘츠부르크는 인구도 적은데 레드불FC 구단이 잘 운영되고 있음.

⇨ **(박관희 위원)** 레드불 같은 대형 스폰서 그룹 유치가 필요함.

⇨ **(정재웅 위원장)** 강원FC대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구조상 메인스폰서가 없으면 구단운영이 어려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여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구단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함.

❍ **(유순옥 위원)** 오페레타페스티벌과 유사한 축제를 강원도에서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초기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문화·관광 상품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정재웅 위원장)** 지역에서 도민과 문화예술을 소통하는 무대가 필요함.

⇨ **(유순옥 위원)** (뫼르비슈는)무대를 한번 만들면 2년을 유지한다고 함. 강원도는 무대를 바꾸지 않으면서 행사를 추진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고 동시에 지원을 강화하면, 성공적인 지역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임.

❍ **(원미희 위원)** 도로, 건물을 보면 문화예술적인 시설물이 많음. 이러한 심미적인 건축물은 문화유산으로 계속 남게 됨. 우리도 향후 다리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을 건축 시 이를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토론회 회의록

⇨ **(원제용 위원)** (유럽은)100년, 1,000년을 바라보고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화·건축에 대한 시각을 본받아야 할 것임.

❍ **(유순옥 위원)** 치매환자와 동반자 케어를 위한 미술 프로그램도 좋은 정책으로 보임. 이러한 정책과 시설을 강원도에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 현장의 상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 추진 필요. 동반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보호자에 대한 정책도 발굴 필요함.

❍ **(박관희 위원)** 다양한 경험이 쌓여 축적되면 향후 정책반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일례로 유럽의 도로·거리에 있는 작은 돌로 만들어진 도로(코블스톤)는 관광 측면에서는 좋으나, 사회약자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음.
- 이처럼 실제로 경험해보기 전에는 몰랐던 다양한 경험이 쌓여야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김시성 위원)** 오페레타페스티벌에 대해 조사하였을때는 수상 플로팅 무대가 있고, 매년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하여 기대가 컸음.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자연 환경이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음.

- 강원도는 더 좋은 자연환경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 훌륭한 무대 시설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한다면 전국 예술인이 강원도를 찾게 만들 수 있을 것임.
-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할 것임. 선제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시설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은 석재구조로 건축물이 구성돼 있어, 우리나라의 목재구조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목조 문화재를 보존·관리하여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방안 고민필요

❍ **(심오섭 부위원장)** 시군별로 특성화가 필요함. 18개 시군별 문화·관광 등 분야별 선택과 집중 육성을 해야 함.

- 레드불FC같은 경우 작은 지역에서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선수를 육성하여,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는 레드불FC 구단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음. 강원FC는 춘천과 강릉을 이동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춘천-강릉)경기장과 숙소를 바꾸면서 경기를 하면 좋은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의료·체육(종목별) 등등 시군 특성에 맞는 집중이 필요함.

□ **마무리말씀(정재웅 위원장)**

❍ 그동안 고생 많으셨음. 결과보고는 집행부에도 공유하여 강원도형 정책에 이번 국외연수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음.

□ 토론회 사진

토론회 개최

위원장 인사말씀

부위원장 결과보고

도정 정책 반영 토론회

도정 정책 반영 토론회

도정 정책 반영 토론회

위원장 마무리말씀

기념촬영

<언론 보도자료>

江原日報
2023년 05월 18일 (목)
인물 21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정재웅)는 17일 세미나실에서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도정 정책반영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사문위 도정 정책반영 토론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7일 세미나실에서 '도정 정책반영 토론회'를 열고 올 3월 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 일원을 방문했던 결과를 점검했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 2024년 강원국제트리엔날레와 연계해 강원도와 오스트리아 간 우수 미술작품을 전시 교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오스트리아 레드불FC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원FC가 도비 보조를 받지 않고 자립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찾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오섭(국민의힘·강릉) 사문위 부위원장은 "우수 사례가 정책에 반영돼 강원특별자치시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Ⅶ 총평

❍ 2023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6박 8일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를 방문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우수정책 사례 등을 연구 하였음.

❍ 오스트리아에서는,

- 문화예술 정책과 예술인 창작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여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방안을 고민하여,
- 강원도(문화예술과) 정책기조인 “문화자치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굴하였음.
- 오페라 수상스테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 추진 시 우기를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호수가 있는 춘천·강릉 일원의 새로운 랜드마크 축제를 위한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음.
- 그 밖에 강원FC의 재정 독립과 실력 향상을 위해 유소년 축구단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체코에서는,

- 보건사회정책 연구를 통해 어르신 정책과 정신건강 분야의 우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었으며,
- 관광 정책 및 통계자료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한 벤치마킹 및 강원 관광의 도약을 위한 정책사례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우수 정책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논의를 통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안목을 높이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Ⅷ 향후계획

❍ 공무국외출장 정책반영 간담회 개최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 우수 정책·사례 등은 관련 부서와 공유 및 정책제언 자료로 활용

memo

memo